■에너지 절약 연구 학교 광주 광산 신창초교 수업 참관기

1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신창초등학교 학생들이 '에너지 체험실'에서 실험을 통해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에 대해 배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조금만 신경쓰면 낭비 크게 줄여요"

## "절약 습관화해서 고유가 이겨야죠"

"세수할 때 왜 물을 받아 놓고 써야 하는 지, 밥을 할 때 왜 압력밥솥을 이용해야 하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2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신창초등학교 '에너지 체험실'. 66㎡ 남짓 크기의 교실에서 20여명의 학생들이 최명자(여·41) 교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선생님의 한 마디 한 마디를 '에너지 지킴이의 실천기록장'에 적어 내려가는 어린이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있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어떻게 하나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을 마구잡이로 사용하지는 않나요. 3분간 물을 틀어 놓고 세수하게 되면 1.5ℓ 페트병 9개(13.5ℓ)가 낭비되지만 물을 받아놓고 세수하면 1.5ℓ 페트병 반 개(0.7ℓ)밖에 소모되지 않아요."

페트병에 물을 담아 놓고 직접 시범을 보이는 최 교사의 설명에 아이들은 금세 고개를 끄덕인다.

현장 실험을 통한 에너지 절약 교육 효과다.

다음 순서는 단열재 주택과 일반 주택간의 열효율 측정 시간. 50㎝ 높이로 축소된 모형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모량을 비교하는 실험이다. 잠시 후 단열재 주택의 뛰어난 열 효율이 수치로 비교돼 나타나는 것을 어린이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

3학년 김홍구(10)군은 "지난주에는 사용하지 않은 콘센트를 왜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는데 그 후 집에서 꼬박꼬박 콘센트를 빼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칭찬해 줬다"며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집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좋은 일이니 꼭 배운 대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신창초교는 지난해 3월 에너지관리공단과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한 에너지절약 정책 연구학교로 지정됐다. 학교는 우선 에너지 절약 수업을 위한 20여 종류의 에너지 체험실을 만들었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알뜰 시장, 에너지 절약 퀴즈 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몸으로 체득하도록 돕고 있다.

3학년 한준영(10)군은 "에어컨을 켜면 선풍기 30대 이상을 켜는 것과 비슷하게 에너지가 소비된다"며 "'안전밸브 잠그기' '물 받아쓰기'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요령을 엄마에게 말해주고 있어 오히려 귀찮아 할 정도"라고 말했다.

최명자 교사는 "어린 학생들은 실험을 통해 가르치면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는 흡인력이 있는 만큼 에너지 절약을 몸으로 체험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제대로 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초고유가시대 철도 뜬다

## 호남선 올 수송량 지난해보다 8.8% 증가

초고유가시대를 맞아 철도가 뜨고 있다.

기업들은 물류수송비와 출장비 절감차원에서, 직장인들은 기름값 부담 때문에 철도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2일 코레일에 따르면 올해 1~4월 철도화물 총수송실적은 1천478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증가했다. 호남선만 비교하면 올해 수송실적은 88만1천t으로 지난해에 비해 8.8%가 높아져, 전국 평균 수송실적을 상회했다.

품목별로는 광양제철 등에서 생산되는 냉연제품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36.2%가 늘어나 증가세가 가장 높았다. 전체 수송물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컨테이너도 전년 동기 대비 8.5% 늘어났다. 특히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지난 3월부터는 물동량이 폭주해 컨테이너 취급 역인 광양항역 등과, 냉연제품 취급 역인 광양 태금역 등의 처리능력이 일시 한계에 도달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경유값이 1.03%포인트 오를 경우 철도화물 수송량이 1.01%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철도화물 수송실적이 지난해보다 7.7% 증가한 4천80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두바이유가가 1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지난 3월 이후 5월까지 열차이용객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만명 가량 증가한 2천743만명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이 기간 기업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업무로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요금을 할인해주는 철도이용계약에 따라 KTX와 새마을호 열차를 이용해 출장을 다녀온 기업체 임직원이 77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3.7% 늘어났고, 이 기간 75개 기업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유가 태풍이 기업들의 출장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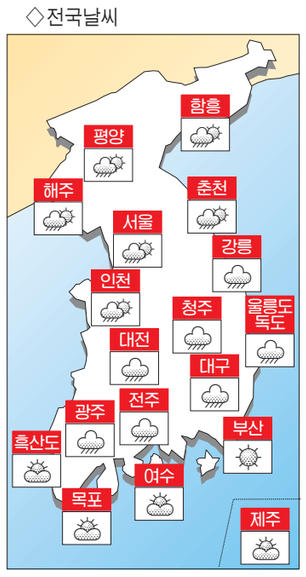
## 오락가락 하늘

6월 3일 (음 4월 30일) 날씨

오후에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전국날씨

| | | |
|---|---|---|
| 광 주 | 오후 한 때 비 조금 | 17~27℃ |
| 목 포 | 구름 많음 | 17~24℃ |
| 여 수 | 구름 많음 | 18~23℃ |
| 완 도 | 구름 많음 | 17~25℃ |
| 구 례 | 오후 한 때 비 조금 | 16~27℃ |
| 해 남 | 구름 많음 | 17~26℃ |
| 장 흥 | 구름 많음 | 16~25℃ |
| 고 흥 | 구름 많음 | 17~25℃ |
| 순 천 | 오후 한 때 비 조금 | 15~26℃ |
| 영 광 | 구름 많음 | 16~25℃ |
| 진 도 | 구름 많음 | 16~25℃ |
| 전 주 | 오후 한 때 비 조금 | 16~26℃ |
| 남 원 | 오후 한 때 비 조금 | 15~25℃ |
| 흑산도 | 구름 많음 | 14~21℃ |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1:25 13:23 썰물 06:50 18:49
여 수 밀물 08:21 21:04 썰물 02:22 14:24

▲해뜸 05:19 ▲해짐 19:43 ▲달뜸 04:10 ▲달짐 19:2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 짜 | 4(수) | 5(목) | 6(금) | 7(토) | 8(일) | 9(월) |
|---|---|---|---|---|---|---|
| 날 씨 | | | | | | |
| 최저/최고 | 17/24 | 15/23 | 14/26 | 15/25 | 16/24 | 16/28 |

## 무안공항~광주 시외버스료 30% 인하

무안국제공항과 광주,여수 등을 잇는 시외버스 요금이 크게 인하됐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무안공항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돼 소요시간과 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이 구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운임도 크게 낮췄다.

광주 광천동종합버스터미널~무안국제공항 구간의 경우 기존 4천800원에서 3천400원으로 30% 인하했다. 또 여수~무안공항 구간은 1만4천200원에서 1만2천800원으로, 광양~무안공항 요금도 1만700원에서 9천300원으로 낮아졌다.

광주~무안공항 고속도로는 최근 광주-나주 구간 개통으로 소요시간이 60분에서 37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안현주기자 ahj@

## 장애인·노인·임산부 로열석서 공연 본다

전남도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관람석을 공연장의 '로열석'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 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호균 전남도의원 등의 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도비가 투입된 공연장 등 공공시설에는 장애인 등에게 보장된 관람석(총 관람석의 1% 정도)의 절반 이상을 최적 관람석인 '로열석'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 보호자 관람석도 장애인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해 주도록 했으며, 출입구와 피난 통로 등에는 장애인 전용통로나 리프트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한국학생 수업 흥미·타인 존중 '낙제점'

### 4개국 초등생 조사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프랑스, 영국, 일본 학생들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교실 내에서 규칙을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는 정도도 선진국 학생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효선 연구팀이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4개국 초등학교 4~5학년생 총 2천3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내놓은 '국내외 교실 학습 연구'에서 밝혀졌다.

◇수업 흥미도 한국이 꼴찌=조사 결과 '수업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프랑스 55%, 영국 48%, 일본 42.6%에 이어 한국이 35.2%로 가장 낮았다. '수업시간에 배우는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비율은 일본 41.7%, 프랑스 34%, 영국 32.3%인데 반해 한국은 19.9%에 그쳤다.

'나는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도 영국은 48%, 프랑스 42%, 일본 19.1%, 한국 18.3%로 나타났고, '나는 교실에서 공부할 때 행복하다'는 프랑스 53%, 영국 42.5%, 일본 20.9%, 한국 20.8%였다.

◇타인 이해 · 존중도 낮아='교실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칙을 배우고 실천한다'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프랑스 63%, 영국 54.3%, 일본 20%, 한국 18.4%였다.

'교실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한다'는 비율도 영국은 60.6%, 프랑스 60%, 일본 28.7%였으나 한국은 15.9%에 그쳤다. /연합뉴스